

‘도제학교’ 부실 운영 심각

전남교육청 전국 첫 실태조사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徒弟)학교에서 전남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와 허드렛일이라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은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내용이 전혀 관련 없다”, “도제반을 다시는 선택하지 않겠다”, “최근 1-2년 사이 일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학교 중심의 우리 직업교육과 스무스식 산업현장 중심 도제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학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남도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전면 실태조사 TF(테스크포스)는 23일 예정된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 보고 및 현장실습 대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교사·공인노무사·학부모 등 11명으로 꾸려진 도제학교 실태조사 TF

2014년 ‘직업교육 모델 창출’ 도입...전남 16개교 644명 참여 학생들 “주로 하는 일은 청소 허드렛일...일하다 다친 적 있다”

오늘 오후 전남도의회서 실태보고 및 대안 토론회 개최

는 지난해 10-12월 도내 16개 도제학교 참여 학생 644명 가운데 75%인 4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교사와 참여 기업에 대한 면담, 방문 조사 등을 포함한 도제학교 사업에 대한 광역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을 ‘기타, 청소, 허드렛일’ 순으로 꼽았다.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 3가지를 쓰라는 질문에 박스 옮기기, 창고정리, 지게차 운전 등을 43.9%(455명)가 꼽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 20.4%(212명), 허드렛일 12.1%(12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립 5.0%(54명), 포장 4.2%(44명)으로 답했다. 학생들은 도제 참여 분야로 용접, 절삭, 전자응용개발, 조리, 미용 등을 선택했는데 실제하는 일은 대개 청소, 허

드렛일, 포장, 조립 등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했다는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하다가 다칠 수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학생이 응답자의 65.2%(301명),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 (친구 포함)고 답한 학생은 33.7%(155명)에 달했다. 최근 1-2년 사이 사고 또는 질병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답한 학생도 15.0%(66명)였고, 이 가운데 8명은 “(사고 또는 질병 경험이) 4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도제학교 제도의 강점으로 설명되는 ‘참여 기업 채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채용되느냐는 질문에 ‘채용될 예정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27.4%(127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5.4%(164명), ‘모르겠다’ 37.1%(172명)로 나타났다.

도제학교 3학년 학생(237명)을 대상으로 ‘다시 1학년 혹은 2학년이 된다면 도제반을 선택하겠느냐’는 설문에는 절반이 넘는 53.2%(126명)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내놨다.

전남교육청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와 함께 23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에서 ‘도제학교 실태보고 및 대안 토론회’를 연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 2학년부턴 운영하며, 기업으로 출근하는 날은 학교 출석을 인정한다. 2017년 기준 광주 4개교, 전남 16개교 등 전국 특성학교 198개교가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 구성은 2017년 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협의 결과이자 장석용 전남도교육청 공약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일본 후쿠야마대 공동심포지엄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은 일본 히로시마현의 후쿠야마대학 초청을 받아 ‘시마나미(島波)와 다도해’라는 주제로 최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이 ‘한국에서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그 의의’를 발표했고, 흥선기 교수는 ‘섬의 생태문화자원, 보존과 응용의 사례’를, 김재은 교수는 ‘한국 무인도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후쿠야마대학측에서는 아베나베 신이치 교수가 ‘섬에서 번식하는 바다조류의 필드연구’를, 사토 준(佐藤 準) 교수가 ‘시마나미 연안 생태계

의 지속가능성과 유전학의 응용’을, 그리고 아리타키 마사토 교수가 ‘양식에 의한 어촌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발표했다.

강봉룡 원장은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해 ‘역사의 반전’이라 규정하고, 기왕 관광 위주의 섬 정책을 넘어서서 섬의 자연생태를 지키고, 청정자원을 활용해 ‘6차 산업’을 일으킴으로써 섬을 살리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중들의 관심은 한국의 섬의 날 제정과 6차산업 제안에 모였고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입학식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가 입학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학생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입학식을 열었다.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는 전남지역 고교 1학년 학생 80명과 20명의 지도교사로 구성됐다. 학교는 사전 캠프 3회, 사후 캠프 2회, 7월 24일~8월 2일 만주, 백두산, 러시아를 거치는 14박 15일의 항일 유적지 해외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올해는

학생 80·지도교사 20명

7월 24일 ~ 8월 2일

만주·백두산·러시아

항일 유적지 해외 탐방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북녘땅을 경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석용 전남교육감은 “열차학교는 힘든

과정이지만 자신을 성장하고 조국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는 2015년부터 특색교육활동으로 운영해 온 ‘시베리아 횡단독서토론회열차학교’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되,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통일자치학교 형태로 방식을 개선해 새롭게 운영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4월 평화·번영·통일교육 주간 광주교총·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4월을 평화·번영·통일교육 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들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통일교육 집중실천 기간으로 삼고 공개수업, 공동수업자료 개발, 학교 앞 현수막 게시, 판문점 선언 1주년 교재세트 배부하기로 했다. 공개 수업은 이달 25일 대자초(오전 10시50분)와 무진중(오후 1시30분)에서 진행된다.

교육현안에서 그동안 시각차가 뚜렷했던 두 단체는 함께 손잡고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광주교육본부’를 출범시키고, 평화통일 교육에 앞장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로봇과 코딩하며 놀아보자”

한 SW로봇특강을 진행했다.

조선대 SW융합교육원(원장 정일용)은 최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만 60세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실버세대! 우리도 로봇과 코딩하며 놀아보자’라는 주제로 터틀 로봇을 활용한 SW로봇특강을 진행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대, 올바른 흡연에티켓 만들기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학생들이 캠퍼스 내 올바른 흡연에티켓 만들기

에티켓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기 중 매일 학교 운동장과 각 단과대학 주변 등에서 홍보 문구가 적힌 알리판을 들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생복지위원회는 또 재학생 22명으로 구성된 금연구역 단순반을 운영키로 했다. 단순반은 두 개 조로 나뉘어 매일

2회씩 화장실과 보행로, 강의실, 복도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해 쾌적한 교내 환경 조성하고 올바른 흡연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호심철폐리장학금을 감점하는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광주대는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GU Health(금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GU 금연’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학교 호심관 4층 주차장 찾아가는 광주금연지원 버스’와 건강상담 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건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8명 선발

광주보건대학교(총장 정명진)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에 8명이 최종 선발됐다. 광주보건대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참가했으며, 2018년까지 총 129명을 파견했다. 올해는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치기공과와 같이 해외취업 유망직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캐나다·호주로 파견될 예정이며, 8주 어

학연수 및 8주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문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보건대는 교내 토익 및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이 높은 수준의 어학능력을 갖추어 글로벌 현장학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ta.go.kr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5.0 배)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라·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약속 체결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약속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군에 예산능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광동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